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다산 정약용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제들이나 제자들에게 책 읽기를 그렇게도 강하게 권장했다. 아들이나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 보면, 빼놓지 않고 거듭 당부한 내용은 효제(孝弟)와 독서(讀書)였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구실을 하려면 인륜도덕의 가장 근본인 효제를 실행해야 하고,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책을 읽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에서였다. 그렇다면 다산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한다고 했을까. 반드시 고전을 읽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 많은 고전 중에서 마음을 다잡고 논어를 더 자주 대할 때가 많다. 오늘도 논어를 펴고 몇 구절을 읽어본다. 논어 20편의 마지막은 '요왈(堯曰)편이다. 동양의 이상 사회를 이

잘못된 일은 모두 남의 탓이라니

룩한 성인 임금인 요(堯)임금이 권력을 순(舜)임금에게 넘겨주면서 권면한 말씀으로 시작되는 편이다. 이른바 요순시대에 요임금이나 순임금은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나라를 통치했는가에 대한 깊은 뜻이 담겨있는 내용이다.
“사해군공 천록영종(四海群公 天祿永終)이라는 여덟 글자의 경계 말씀은 무서운 이야기이다. 온 세상이 곤궁해지면 하늘이 내린 임금의 복록은 영원히 끝나고 만다는 뜻이다.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가. 천명(天命)으로 임금의 지위에 올랐다면 백성의 삶이 곤궁해지지 않도록 정책을 구현해내야지, 그렇지 않고 백성들이 고달프고 가난해지면 임금의 권력이 끝장난다는 내용이다. 물론 옛날의 임금과 지금의 대통령은 차이가 있다. 하늘의 뜻으로 임금의 지위에 오른 요순과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은 다르지만, 민심이 천심(天心)인 이상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은 요순처럼 국민들이 곤궁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제왕적 대통령으로 행세할 수 있는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는 실제적으로 황제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 막강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이 요순의 뜻과 다른 정치를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천록이 영종한다는 무서운 뜻을 잊어서 되겠는가.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경계할 말은 더 이어지고 있다. “내 몸이 죄가 있음은 만방의 백성 때문이 아니고, 만방의 백성에게 죄가 있음은 그 죄의 책임이 내 몸에 있다”(朕躬有罪 無以萬方萬方有罪, 罪在朕躬)라는 내용은 남을 탓해서는 안되

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고대 동양의 이상국가는 요순시대의 나라였다. 그런 이상국가를 이끌었던 요순은 특별한 통치술을 발휘했다는 것도 아니었다. 백성들을 곤궁하지 않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내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라고 생각하여 남의 잘못도 자신의 잘못이라 여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공자(孔子)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도 정확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요순은 풀베는 농부에게도 의견을 들었다’라고 말하여 열린 마음과 진정한 소통을 찬양하였다.
오늘의 정치 현실을 보자. 통치자가 아무리 엉터리로 말과 행동을 하고도 모든 것은 전 정부의 잘못으로 돌리고, 비판하는 언론이나 야당만을 탓하고 있다. 국가의 부재로 국민 159명의 참사가 발생했는데 한 마디의 진정한 사과도 없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일조차 안하면서, 자신들은 어떤 잘못도 없다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으니, 요순의 시대와는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인가. 노동자,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노동조합이나 농민운동은 탄압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정권의 천록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남의 죄도 자신의 죄로 여겨야 한다는데, 자신의 죄까지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는가. ‘내 탓이오, 내 탓이오’를 외치던 고 김수환 추기경이 그림기만 하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허탈한 마음에 이 글을 쓴다. 나는 각서 한 장을 읽어 버린 것이다. 아니다.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다. 나의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었다. 내가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아무 능력이 없다 해도 결코 구박을 당하거나 버림 받을 염려가 없었다. 날마다 날마다 효도를 받으면서 꿈 같은 여생을 보낼 것이었다. 그런데 그만 볼거품이 되어 버렸다. 아직도 그 글씨며 문구가 눈앞엔 듯 환하고 짙고 짙고 짙은 지문까지 선명히 떠오르는데, 사람 속에 풍광 넣어둔 비장의 무기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이름하여 효도 각서였다.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발적으로 작성한,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거나 어떠한 처분에도 군말 없이 따르겠다거나 무엇을 포기하겠다는 거나 하는 그런 각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효도할 것을 맹세한다는 효도 각서!
방학은 끝나가고, 큰애는 밀린 숙제가 걱정이었다. 다른 건 몰라도 밀린 일기를 한꺼번에 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것도 그냥 일기가 아니라 주제가 있는 일기, 즉 효도 일기였다. 난감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내내 없다고 했던 숙제를 막바지에서야 내놓

각서

는 것도 마뜩찮고, 믿거니 하고 내버려 둔 나의 방심도 못마땅했다. 그렇다고 일기를 대신 쓸 수도 없고, 지어서 쓰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해도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왜 안 했느냐 뒤달릴 수만도 없는, 참으로 곤란한 지경이었다. 애꿎은 선생님을 탓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아이는 코가 썩 빠져 제 방으로 들어가고, 무슨 뽕죽 수가 없을까 나 역시 골머리가 아팠다. 밤이 깊어 큰애가 배시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물론 일기장이었다. 자랑스러운 듯 계면쩍은 듯 내민 일기장에는 빠져 있던 자리가 모두 채워져 있었다. 몇 줄 되지는 않았으나 주제만큼은 분명해 보였다.
-오늘은 설거지를 했다. 저녁밥을 먹고 엄마 대신 내가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를 하다가 하마터면 그릇을 깬 뻔했다. 설거지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 엄마는 어떻게 날마다 설거지를 할까?
이런 식으로 시작된 일기는 청소·심부름·안마·동생 돌보기 등으로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럴 땐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할지, 이런 역사가 어딴느냐고 호되게 야단을 쳐야 할지... 게다가 문제는 또 있었다. 여기에 엄마의 사인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일기를 쓰고 안 쓰고는 아이의 문제였지만, 사인을 하고 안 하고는 순전히 내 몫이었다. 나는 다시 또 난관에 봉착했다. 날마다 성실하게 써야 할 일기를 하룻날 급조한 것도 그렇고, 더러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도 그렇고.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 판관이 되기는 참 어렵다. 엄마 노릇 하기는 더 어렵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

고 하더니 불쑥 모택 하나가 떠올랐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효도는 이제부터 하는 거야. 여기 일기장에 쓴 대로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 안 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겠지? 어때?”
그러니까 뭐 간 걸 갇아야 사인을 하겠다는 말이었나. 내 제안에 큰애의 표정이 화들짝 밝아졌다. 말귀 빠른 아이는 눈까지 반짝반짝해지더니 뜬금없이 각서를 쓰겠다고 했다. 며칠 전 제 단짝 친구와 우정 각서를 썼다더니 요즘엔 각서가 대센가? 웃음이 나왔으나 굳이 말릴 것까지는 없었다. 곧장 백지를 가져오더니 영원히 효도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을 토박토박 써 나갔다.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1학년짜리 작은애가 저도 쓰겠다고 나섰다. 이런 황궁할 데가!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덕분에 나는 유례없는 부자가 되었다. 조복 조복 효도하겠다는 각서를 두 장이나 받았으니, 그보다 더 큰 수확도 없을 것이었다.
다시 서랍을 뒤져볼까 하다 그만둔다. 찾아보야 그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증거물이 없어졌다고 기억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터. 아이들에게 종종 그때 일을 들려줘야겠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전혀 기억이 없다는 등 시치미를 뚝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다. 사라진 각서 대신 기억이 찾아오고 웃음이 남는다면 그건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닌가?
가만히 그날을 생각하고 있노라니 저 깊이 걸리는 게 하나 있다. 공수표가 뭘지라도 나도 그런 각서 몇 번은 써 보고 싶걸. 하늘로 가신 당신들께도 그런 호사 몇 번쯤은 누리게 해 드렸더라면...

社說

군 공항 특별법 통과, 광주·전남 상생 동력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년 가까이 표류해 온 광주·전남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는 엇그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예산을 종전 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충당토록 한 현행법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보완, 부족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군 공항 지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여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희망 지자체의 유치 의향서 제출,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 간 유치 의사 확인을 거쳐 선정된다. 이후 이전 지역 주민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주민

투표를 거쳐 공식 유치 신청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예비 이전 후보지의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여전히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국제공항이 있어 유력한 후보지로 꼽혀 온 무안군은 지역 내 반발이 거세다. 최근 잇따라 주민 설명회가 열린 함평군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어제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과 광주 군·민간 공항 동시 합병 이전 주장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군 공항 이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가 지원 문제가 해결된 만큼 이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 등 지역사회가 최선의 이전 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전 지역 지원 사업 내용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군 공항 이전을 통해 광주와 전남이 상생 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형 작품 잇단 무산...광주 전문 공연장 확충을

광주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이 개관 32년 만에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개관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와 문예회관 측은 1991년 개관해 노후화가 심한 문예회관에 2020년부터 29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앞서 시운전을 하고 있다.
문예회관은 이번 공사를 통해 인프라가 크게 개선됐다. 디지털 컨트롤 시스템 교체 등으로 다양한 장면 연출은 물론 속도감 있는 무대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무대 바닥재 전면 교체, 조명 등 무대 인프라도 확충됐다. 객석은 좌석 크기와 배열 간격을 넓혀 쾌적한 관람 환경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대극장은 1772석에서 1517석으로, 소극장의 경우 504석에서 464석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대부분 공연장 좌석이 동반 관람자를 고려, 좌수인 데 반해 문예회관은 홀수로 배치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문예회관

에서는 '오페라의 유령' 등 대형 뮤지컬을 볼 수 없다는 점은 가장 큰 한계다. '오페라의 유령' 해외 오리지널 제작팀과 지역 기획사가 지난 3월 문예회관을 실시했으나 공연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하이라이트 장면을 위해 오케스트라 공간 위에 상층리예를 매달아야 하지만 현재 공연장 구조상 설치할 수 없는 등 장애 요인이 많다. 그동안 수차례 대형 공연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것은 전용 공간이 아니라 다목적 공연장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주요 도시는 장르별 전용 공연장을 속속 건립하고 있다. 부산국제아트센터,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천아트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도 이제는 문화수도 위상에 걸맞은 공연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 전용 공연장 구축은 시민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고 관련 공연·예술 활성화 등 문화를 살찌우는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마냥 미뤄 둘 수 없는 과제다.

無等鼓

현대 사회의 특징을 규정하는 용어 가운데 '피로 사회'라는 말이 있다. 물질만능 사회, 고령화 사회, 파편화된 사회 등 기존 현대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용어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피로 사회'(문화과학지성사)는 베를린예술대 철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재목 철학자 한병철이 지난 2012년에 발간했던 책의 제목이기도 했다.
한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공황조처럼 떠돌아다니는 성과주의를 '피로 사회'와 연관 짓는다. 그는 "피로 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이다. 피로 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라고 주장한

본리되지 않는다."
한 교수의 주장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인) 인식 조사 결과를 생각하게 한다. MZ세대들은 전체 응답자의 36.6%가 취업 최고 조건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선호했다. 다음으로 29.6%가 월급과 성과 보상체계가 잘 갖춰진 기업을 꼽았다.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던 월급과 정년 보장과 같은 조건은 퇴조한 대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일수록 개인의 피로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번아웃 되거나 우울에 빠진 이들이 증가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성과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이들의 자세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과도한 성장과 실적 경쟁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중재 피로로 전이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피로 사회가 아닌 여유와 배려, 공감과 나눔의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일까.
/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 skypark@

'피로 사회'

기 고



이성자
동화작가

십여 년 전 친구 집에 들렀을 때 주황색으로 활짝 피어 있던 군자란을 처음 만났다. 환하게 웃고 있던 꽃을 바라보니 당장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마저 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포기 주위로 올라온 아기 촉을 얻어 와 심었다. 그런데 애지중지 보살피고 물도 자주 주었지만 쉽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했더니, 군자란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며 겉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주라고 알려 주었다. 먹기 싫은 물을 자주 주었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아기 군자란은 특별히 마음 쏟지 않고 때 맞춰 물만 주어도 쑥쑥 잘 자랐다. 삼 년 정도 지났을 무렵 기특하게도 긴 꽃대 끝에 고고하고 단아한 모습의 멋진 꽃을 여러 송이 피워냈다. 너무도 기뻐서 당장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아 친구에게 보냈다. 우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전화로 그동안 지냈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남편 흉에서부터 자식 자랑까지 시간 가는 줄 모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르고 노력거렸다. 모처럼 소리 내어 웃고 떠들었더니 가슴 밑바닥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풀리고 우울했던 기분도 말끔히 사라졌다.
몇 번의 꽃이 피고 지더니 군자란은 어미처럼 아기 촉을 여러 개 키워 냈다. 그 촉을 떼어 딸과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몇 년이 지나자 아들과 딸은 만나기만 하면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군자란을 꺼내 보이며 뉘 집 꽃이 더 예쁘게 피었는지 자랑하기에 바빴다. 누가 먼저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군자란 덕에 가족 단 특별까지 만들어 되었고, 시새워 군자란 사진을 올리곤 하였다.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준 셈이다. 고맙게도 군자란은 30~40년 살 수 있는 장수 식물이라고 하니, 봄마다 주황색 꽃을 피워내며 오랫동안 즐거움과 괴로움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요즘은 다양한 반려 문화의 시대다. 기호에 따라 개, 고양이, 물고기, 햄스터, 거북이, 새, 각종 식물 등 그 종류도 다양할 것이다. 반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주변을 보듬는 삶의 빛이 되었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군자란 역시 자연스럽게 나와 우리 가족의 반려 식물이 된 셈이다. 그러나 인간과 반려의 관계는 함께 할 때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넘쳐 나지만 헤어질 때는 사랑했던 만큼 슬픔도 강렬할 것이다. 이제는 반려가 안겨주는 기쁨이나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도 깊게 생각해 볼 문제다.
작년에 '겉음동무'에서 펴낸 동화 '숲으로 간 루비'

를 보면 주인공이 기르고 있던 강아지 '루비'가 죽게 되자 몹시 슬퍼한다. 왈각 눈물을 쏟아 내는 주인공에게 그의 엄마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모두에게는 주어질 시간이 있어. 루비의 시간은 우리보다 조금 더 짧았을 뿐이야. 누구에게나 잠에서 깨지 못하는 날이 와. 엄마와 아빠에게도, 그리고 언젠가는 너에게도.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야"라고 들려준다. 엄마의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 모르지만 주인공은 루비를 통해 삶과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는 죽는다는 것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얼핏쯤 느끼게 된다.
마음이 편해진 주인공은 기억의 숲을 헤치고 깊숙이 들어간다. 다행스럽게도 루비는 건강한 모습으로 기억의 숲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주인공은 슬픔도 기쁨이나 행복만큼 값진 것이며, 루비가 그림고 슬프다면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된다. 결국 루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슬픔도 강렬할 것이며, 마음속에서 슬픔과 사랑이 밀물과 썰물처럼 파도친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반려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담담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값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어느덧 나의 반려가 된 군자란, 올봄에도 그리운 친구의 얼굴인 듯 아름답고 탐스러운 주황색 꽃을 선물로 안겨 주었다. 나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군자란 앞에서 도란도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